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2. 19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임유현 ·☎ (044) 201-4129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정부는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서만 맞춤형 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조선일보, '19.12.19.) >

- ◆ 서울 뚝뚝한 한 채 부추긴 정책... 지방은 10% 빠졌다
- 지방 큰손 상경투자 러시...창원 등 미분양·강통전세 속출
 -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45% 상승 “초양극화 심화”

- 그간 정부는 서울 등 일부 과열 지역에 한해 시세 차익 목적의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선별적·맞춤형 대책을 시행해왔으며, 지방은 대부분 비규제지역으로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.

* 지방 규제지역 현황('19.12월 현재) : 세종, 대구수성

- 지방 주택시장은 '09~'15년간 장기간 상승기를 거친 후 '16년부터 가격 조정과정에 있으며 그간의 상승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적 하락폭은 낮은 수준입니다.

- 또한, 최근에는 그간 하락폭이 컸던 울산, 창원, 청주, 천안 등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

* 12/3주 아파트가격 상승률(%) : (울산) 0.14 (창원) 0.09 (청주) 0.08 (천안) 0.12

< 연간 매매가격 변동률(%) >

(연간, %)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.11
수도권	1.25	-1.75	0.48	-3.02	-1.12	1.47	4.37	1.32	2.36	3.31	-0.17
지방광역시	1.99	6.40	15.06	3.12	2.05	2.47	4.31	0.87	1.44	0.38	0.02
지방도	1.37	5.50	12.86	3.16	1.37	1.60	1.72	-0.31	0.12	-1.73	-2.06

누적 30.45% ↑

누적 -3.93% ↓

- 지방의 미분양도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, '19.10월 기준 4.8만호로 정부의 미분양 매입 등 과거 정책적 개입시기('08.10월, 13만호)보다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.

* 지방 미분양(만호) : ('18.12월) 5.3 ('19.3월) 5.2 (6월) 5.2 (9월) 5.0 (10월) 4.8

- 정부는 지방의 주택시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공급과잉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을 조절해나가고, 시장 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 보호 강화에 주력해나갈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임유현 사무관(☎ 044-201-41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